

##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김지원(金祉沅)\*\*

이정윤(李貞兪)\*\*\*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문화 특성을 바탕으로 부모자녀관계를 개념화한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 자녀의 자아분화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을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소재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 472명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유친성정은 자아분화 및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을,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와 정적 상관을, 문제형 의사소통과 자아분화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부, 모 각각 검증한 결과, 부-자녀 의사소통과 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간의 관계 및 모-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자유친성정, 자아분화, 부모자녀 의사소통

\* 본 연구는 이정윤의 지도로 이뤄진 김지원(2011)의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부모자녀 의사소통 매개효과’를 수정, 요약 한 것임.

\*\* 제 1저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교신저자,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I. 서론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맺는 관계이자 전 생애에 걸쳐 인지 및 정서발달, 그리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와 이론가들이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애착,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내·외현화 문제 및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깊고(김보경, 민병배, 2006; 정은선, 조한익, 2009; Barber, Olsen, & Shagle, 1994; Kochanska & Murray, 2000), 부모와의 애착 또한 자녀의 자존감, 대인관계능력, 학업 및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수임, 김창대, 2009; 이복영, 2008; 황영훈, 박은영, 2003; Hamilton, 2000). 이 밖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나 가족기능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은 자녀의 정서, 행동문제 및 발달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홍규, 최재향, 2006;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Barber, Olsen, & Shagle, 1994; Lambert & Cashwell, 2004; Riesch, 2006).

그러나 부모자녀관계 변인을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서구의 이론 및 측정도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박수영, 2005; 최인재, 2004). 물론 부모와의 친밀감, 돌봄, 의사소통 방식, 가족구성원간의 응집성과 같은 문화보편적 특성들은 국내 연구에서도 타당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나, 한국문화 고유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최인재, 2007). 즉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은 문화보편적으로 강조되는 요소이나, 그 개념의 질과 내용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주요한 접근과 적용에 있어 문화적 차이나 체계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이장주, 2002).

선행 연구에 따르면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은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밀착도와 가족체계의 변화유연성을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보고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의 기능을 측정하였는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양극단에 속한 밀착된 관계일수록 자녀가 일탈이나 부적응 증상을 보이고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융합을 조장하여, 자녀의 개별화와 심리·사회적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았다(Barber, Olsen, & Shagle, 1994; Minuchin, 1995;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반면 국내 연구들에서는 가족 간 정서적 밀착도 개념으로 가족응집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오윤선, 2008; 전귀연, 최보가, 1993), 불안이나 우울을 더 적게 경험하며(최인재, 2009), 의사소통 방식 및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타인과 쉽게 친해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이지민, 2010; 정은영, 신혜원, 2009). 박영신과 김의철(2003)은 한국의 초, 중, 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통제, 무관심, 적대의 변인으로 측정하는 Rohner와 Pettengill(1985)의 '자녀양육태도 설문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취동

기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서양의 청소년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들의 성취동기가 높아졌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할 때,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부모의 적대적이고 비신뢰적이며 거부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지각한 반면, 아시아권 학생들과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엄격함을 통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2003; Feldman & Rosenthal, 1991; Kim & Choi, 1994). 이처럼 부모자녀 상호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일률적인 잣대로 해석할 수 없으며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따른 사람들의 경험 및 인식 차이를 수용하고 한국문화를 고려한 부모자녀관계 이론과 척도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부자유친성정의 구성요인 및 척도제작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방희정, 2000; 이장주, 2002;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최인재, 2007).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특징을 살펴보면, 개인은 '우리'라는 의식을 토대로 관계를 통해 자아개념이 발달하고(이장주, 2002), 집단주의와 유교사상을 전제로 부모자녀 간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이 발달되었다(최상진, 2000; Markus & Kitayama, 1991). 또한 혈육의 식, 보은, 인간의 도리 등을 내포적 속성으로 한 부모자녀 유친(有親)관계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평등윤리 인간관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박명석, 1993). 최상진, 유승엽, 김혜숙(1994)은 이러한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자애(慈愛)와 효(孝)를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간의 끈끈한 심정교류와 감정·의식 동일체(同一體)적 친애관계라고 설명하였다. 즉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믿고 지지하며 아끼고 보살피는 존재로, 부모의 기쁨이나 슬픔은 자녀의 기쁨과 슬픔이 되고 자녀의 성공은 곧 부모의 성공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는 자신을 위해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아껴줌', '보살피움', '희생', '양보'로 지각함으로써, 부모에게 '고생'과 '죄송', '고마움' 등의 측은지정의 정서가 유발되어 '효도하고 싶다', '보답하고 싶다'와 같은 행동 경향성으로 나타난다(이장주, 2002).

이러한 부모자녀 간 동일체적 의식이 내재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최인재, 2004). 그러나 한국문화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보기보다 자신의 분신이라고 여김으로써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와 믿음, 희생과 헌신을 자연스럽게 부모의 역할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자녀 또한 이러한 부모의 모습에 고마움과 미안함 마음을 가짐으로써 효도나 성취동기로 연결되는 긍정적 심리기제로 작용한다(이운기, 2005). 이러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간과하고 자녀의 독립성과 개별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구의 자녀교육관을 한국인 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

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깊고 친밀한 유대감이 한국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Tamura와 Lau(1992)에 따르면 가족구성원간의 화목과 친밀한 관계유지가 강조되는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미분화에 기인한다기보다는, 통합이나 연결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문화 내 관계주의, 혈육의식, 측은지심, 희생이나 헌신과 같은 부모자녀관계 특성이 반영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심리적 발달 및 적응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건강한 자아의 형성을 예언하는 변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녀의 심리적 성숙의 특성으로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아분화란 미분화된 가족자아군에서 자신을 분리·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충동적 정서적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분화 수준이 발달할수록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화시킬 수 있는 개인 심리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외부세계 및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여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보았다(Bowen, 1982). 체계이론에서는 자아분화를 이루기 위해 유기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실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개별화'와, 타인의 인정과 집단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누리려는 특성인 '일체화'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김동직, 1999; Cushman, 1990). 특히 가족의 정서체계 및 가족원과의 관계,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보았다(김정택, 심혜숙, 1993). Bowen(1976)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안의 정도가 높고, 불안이 만성적이 되면 유기체는 그 자체 내에서도나 관계 체계 내에서 긴장이 증가되어 신체적·정서적 역기능 및 충동적 행위, 위축, 사회적 비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개인에게 정신건강이나 적응 및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였고(Elieson & Rubin, 2001; Hoffman & Weiss, 1987; Ora, 2002), 국내 연구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높으며(이혜숙, 1992; 제석봉, 1989), 청소년 및 대학생의 높은 자아분화 수준은 학교적응, 갈등대처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2005; 이선미, 2014; 최연실, 김현영, 2005). 본 연구에서는 사고와 정서의 분화를 이루는 개인 심리내적 측면과 타인 및 외부 환경과 자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관계적 측면을 포함하는 성숙의 요인으로 자아분화를 다루고자 하며,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한국문화에서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의 해석은 서구의 관점과 다를 것으로 추론하였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의 부모자녀관계 구성개념으로 추정되는 부자유친성정과 개인의 심리적 성숙의 차원인 자아분화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자아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부자유친성정으로 인해 영향 받은 어떠한 특성이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여 자아분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매개 변인으로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을 부모자녀 간 정서적 유대 및 상호기능의 촉매로 보는 가족체계 순환모형 이론에 기초를 두었으며(Barnes & Olson, 1982),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 및 의사소통간의 관계를 통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연구한 기존 연구결과들(김갑숙, 전영숙, 2009; 김은경, 2010; 장사라, 2001; 박수영, 2005; 최인재, 2004)을 토대로 하였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은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고 부모자녀관계가 상호 유지·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상호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가므로 부모와 대화하는 방식, 태도, 내용 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희자, 김경원, 2000). 또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부모자녀 간 건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서로 수용과 배려를 통해 관계를 성장시켜 애정, 자아존중감, 안정감,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개인적 욕구를 성취할 수 있다(김애경, 2001; 이희자, 김경원, 2000).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델에 기초하여 개방형과 문제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개방형은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부모로부터 지지적인 반응을 받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문제형은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의사교환 및 주제선택에 주저하거나 회피하여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경험함으로써 의사소통에 거리감을 느끼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감 및 반사회적 행동이 낮았으며(김성일, 김남희, 2001; 김애경, 2001),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불안, 갈등처리 방식, 부적응과 관련이 높았다(김인아, 2007). 대체로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은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력이 좋고(이희자, 김경원, 2000),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은 내·외현화 문제 및 게임중독 경향성 등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아, 2007; 김홍규, 최재향, 2006). 본 연구의 변인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자유친성정을 높게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박수영, 2005; 최인재, 2004) 특히 부자유친성정의 하위요인 중 일체감 요인은 자아분화수준 및 대인관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10; 박수영, 2005).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간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김갑숙, 전영숙, 2009; 장사라, 2001; 최인재, 2004). 부자유친

성정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간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부자유친성정 척도개발 연구(이장주, 2002)에서 두 척도 간 상관성이 높고 부모자녀관계를 잘 측정한다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부자유친성정과 청소년의 인지·정서·행동적 문제해결력 간의 정적상관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은경, 2010)와 대학생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일체감과 헌신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밀하고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최명선, 문은미, 2009b)를 통해 부자유친성정과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의사표현의 정적상관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성숙에 있어 부자유친성정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인다. 부모자녀 관계 요인 및 척도개발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에 대해 경험하는 청소년의 지각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에게서는 친밀감 요인이, 아버지에게서는 존경심이나 이해와 같은 요인이 심리내적 표상으로 작용하여 학교적응과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성희, 임성택, 2010; 최인재, 2007). 따라서 부모자녀관계 및 의사소통 변인을 분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 내 조화와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서 깊은 유대감 및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 간 관계지각이 자녀의 자아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사이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대학생으로 선정 한 이유는 서구 대학생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들은 부모에게 의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독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성숙을 획득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적절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발달단계의 연령대에 속해 있는 전문대 이상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유친성정, 자아분화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위치한 전문대 이상의 남, 여 대학생 총 550명 중 전문대에 재학 중인 237명(43.1%)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13(56.9%)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학생들과

담당 교수의 협조를 구하고 강의 시간 이후에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30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58부를 제외한 47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자 202명(42.8%), 여자 270명(57.2%)이며, 연령비율은 만18세-21세 이하 298명(63.1%), 만22세-25세 이하 155명(32.9%), 만26세 이상 19명(4.0%)이었다. 부모님의 주 연령층은 아버지가 50대(71.4%), 40대(23.1%) 순이었고, 어머니는 40대(48.5%)와 50대(48.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측정도구

### 1) 부자유친성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자유친성정을 측정하기 위해 최상진(1994, 2002)의 부자유친성정 이론에 기초하여 이장주(2002)가 개발한 부자유친성정 척도(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아버지, 어머니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척도로는 일체감 요인 12문항과 헌신성 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체감 요인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보호', '믿음', '이해', '조언', '친밀감'으로 자녀에게 경험되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믿음과 지지, 동일체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헌신성 요인은 부모가 자식에게 양보하고 애쓰는 희생의 경험에서 주로 유발되며, 자녀는 이러한 지각으로부터 부모에게 '고마움' 등의 측은지정 및 '효도', '보답'의 행동 경향성으로 나타난다(이장주, 2002; 최인재, 2004). 이 척도는 아버지 부자유친성정과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으로 나뉘지고, 각 점수가 높을수록 부자유친성정 수준이 높으며, 부모에 대해 자녀가 지각하는 믿음과 지지의 정도, 부모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지각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장주(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 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표 1과 같다.

<표 1>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아버지 일체감	1 - 8, 10, 11, 12	12문항	.93
아버지 헌신성	9, 13 - 20	8문항	.90
어머니 일체감	1 - 8, 10, 11, 12	12문항	.92
어머니 헌신성	9, 13 - 20	8문항	.91
전체		40문항	.95

## 2) 자아분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Bowen가족체계 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다섯 가지 하위 척도로 나누어지고,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며, 문장의 진술이 부정적인 경우 그 점수 배점은 역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각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 척도의 점수를 합산한 값이 전체 자아분화 수준을 나타낸다. 이들 하위척도 중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점수가 높으면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자기감정의 통제능력, 충동성, 합리화, 불안정감 등 사고와 감정의 적절한 분화 능력을 측정한다. ‘자아의 통합’은 개인이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가족투사과정’은 부모의 미분화 특성을 특정 자녀에게 투사하는 정도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및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근심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정서적 단절’은 부모에 대한 애착의 부정 및 고립, 반항, 가출의 욕구를 통한 정서적 거리유지, 위장된 독립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가족퇴행’은 가족성원들 간의 갈등처리방법, 폭력 유무, 역기능적인 의사거래유형 등 가족성원들의 퇴행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제석봉(1989)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아분화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1), (2), 3, (4), (5), (6), (7)	7	.68
자아의 통합	8, 9, 10, (11), (12), 13	6	.68
가족투사과정	(14), (15), (16), (17), (18), (19)	6	.84
정서적 단절	20, (21), (22), (23), (24), (25)	6	.77
가족퇴행	26, 27, 28 ,29, 30, 31, 32,(33),(34),(35),(36)	11	.89
전체		36	.86

( ) 문항은 역채점

##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 &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이 번안한 자녀용 질문지



를 사용하였다. 이는 부-자녀 간 의사소통 20문항과 모-자녀 간 의사소통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개방형 의사소통과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문제형 의사소통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개방형 의사소통의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문제형 의사소통의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이고 문제적임을 의미한다. 민혜영(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아버지 의사소통 .86, 어머니 의사소통 .85, 전체 의사소통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 척도의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아버지 개방형	1, 3, 6, 7, 8, 9, 13, 14, 16, 17	10	.93
아버지 문제형	2, 4, 5, 10, 11, 12, 15, 18, 19, 20	10	.80
어머니 개방형	1, 3, 6, 7, 8, 9, 13, 14, 16, 17	10	.92
어머니 문제형	2, 4, 5, 10, 11, 12, 15, 18, 19, 20	10	.83
전체		40	.90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9.0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 과

### 1.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644, p < .001$ ). 자아분화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의 분화수준 및 자아의 통합수준이 높고, 가족투사, 정서 단절, 가족퇴행 수준은 낮음을 의미하는데, 부자유친성정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투사, 정서 단절, 가족퇴행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r = .235 \sim .687$ ). 이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일체감, 헌신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로부터의 역기능적 투사 및 정서 단절, 가족성원간의 퇴행적 행동수준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자유친성정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운데 개방형 의사소통과는 정적 상관관계( $r = .590 \sim .690$ )를,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관계( $r = -.483 \sim -.529$ )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투사, 정서 단절, 가족퇴행과는 정적 상관을( $r = .232 \sim .640$ ),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아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요인과 부적 상관( $r = -.239 \sim -.567$ )을 나타냈다. 특히 부-개방형 의사소통은 모-개방형 의사소통에 비해 정서 단절( $r = .557, p < .01$ ) 및 가족퇴행( $r = .640, p < .01$ )과의 정적 상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문제형 의사소통은 모-문제형 의사소통에 비해 가족퇴행( $r = -.567, p < .01$ )과의 부적상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에 대한 일체감과 헌신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일수록 가족투사, 정서 단절, 가족퇴행 수준이 낮았다. 또한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일수록 사고와 정서의 분화 수준이 낮고 가족투사, 정서 단절, 가족퇴행 수준은 높았다.

< 표 4> 주요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965**	-											
3	.943**	.823**	-										
4	.644**	.666**	.550**	-									
5	.129**	.145**	.097*	.498**	-								
6	-.029	-.034	-.019	.160**	-.023	-							
7	.235**	.287**	.145**	.596**	.279**	-.029	-						
8	.596**	.613**	.514**	.692**	.131**	-.105*	.256**	-					
9	.687**	.683**	.622**	.824**	.190**	-.020	.263**	.561**	-				
10	.690**	.727**	.575**	.588**	.139**	-.044	.174**	.557**	.640**	-			
11	-.529**	-.571**	-.422**	-.560**	-.239**	.049	-.251**	-.426**	-.567**	-.654**	-		
12	.590**	.597**	.521**	.502**	.120**	-.017	.232**	.514**	.466**	.387**	-.216**	-	
13	-.483**	-.512**	-.398**	-.583**	-.293**	-.013	-.383**	-.442**	-.469**	-.289**	.396**	-.630**	-
M	159.52	86.69	72.83	104.27	19.34	16.20	17.85	17.05	33.81	31.82	28.90	38.41	26.43
SD	23.59	13.79	10.90	11.84	3.28	2.58	3.66	3.62	6.20	8.73	6.75	7.31	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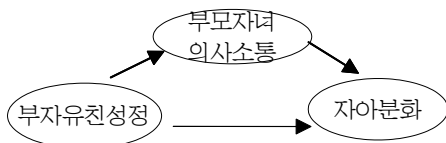
주. 1.부자유친성정 전체 2.부모 일체감 3.부모 헌신성 4.자아분화 전체 5.인지-정서 6.자아통합 7.가족투사  
8.정서단절 9.가족퇴행 10.부-개방의사소통 11.부-문제의사소통 12.모-개방의사소통 13.모-문제의사소통  
\* $p < .05$ , \*\* $p < .01$

## 2.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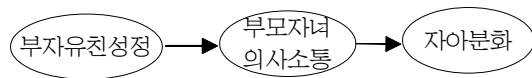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단일평가 방법과 경쟁모형방법이 있다. 단일평가방

법은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와 고정지수(Critical ratio: CR)값을 고려하여 모형을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쟁모형방법은 관련 이론과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른 이론이나 기타 문헌에서의 반박주장 및 간명도의 원리 등에 따라 경쟁모형을 설정한 후 이 둘 간의 비교를 통해 자료와 잘 맞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한다(배병렬, 2007).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방법을 통해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 있어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 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GFI, CFI, TLI, RMSEA 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CFI, TLI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로 본다(홍세희, 2000). 모형비교를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뿐 아니라 내재된 모형비교에 사용하는  $\chi^2$  차이검증을 함께 사용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그림 2]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 1) 부-자녀 의사소통 매개모형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자녀 의사소통과 모-자녀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부-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표 5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 CFI, TLI가 .90이상, RMSEA가 .10이하로 두 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 지수들을 갖고 있다.  $\alpha = .05$  수준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의 차이가 3.84 이상의  $\chi^2$  차이가 있어야 하나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chi^2$  차이 값은 1.3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chi^2$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간결의 원칙”에 의하여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df)가 더 큰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배병렬 2007)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자아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부-자녀 의사소통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쟁모형을 대상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경쟁모형에 따른 경로계수 결과는 표 6과 같다.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에서 부-자녀 의사소통으로 가는 경로와 부-자녀 의사소통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은 부-자녀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자아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자녀 의사소통이 아버지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사이를 완전매개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림 3에 경로계수를 표시하였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경쟁 모형에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사이에서 매개변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Zab 값이 4.406으로 나와, 부-자녀 의사소통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유의하게 경로계수가 입증된 경로의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에서 부-자녀 의사소통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907, 직접효과는 .907로, 독립변인인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이 매개변인인 부-자녀 의사소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자녀 의사소통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866이며 직접효과는 .866으로, 매개변인인 부-자녀 의사소통 역시 종속변인인 자아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부자유친성정이 종속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785이며 간접 효과는 .785로, 이는 아버지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부자유친성정은 부-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자아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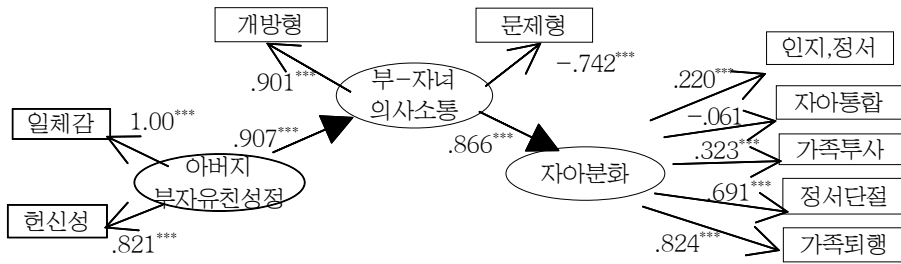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df	G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102.4	24	.954	.961	.942	.083
경쟁모형	103.7	25	.954	.961	.944	.082

<표 6>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의 경로 검증 결과

경로	모수추정치	S. E.	C. R.	표준화계수
부 의사소통 ← 부 부자유친성정	1.281	.059	21.762***	.907
자아분화 ← 부 의사소통	.081	.029	4.502***	.866

\*\*\*  $p < .001$



[그림 3]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2) 모-자녀 의사소통 매개모형검증

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은 부-자녀 의사소통 모형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두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 TLI, CFI 가 .90이상, RMSEA 도 .10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형으로, 두 모형 간 적합도 지수의 차이가 만족할 만큼 크지 않았다. 이는  $\chi^2$  차이 값은 0.9로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간결의 원칙”에 의거해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채택되었다. 즉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만을 주게 되는 완전매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쟁모형을 대상으로 검증하였으며, 경로계수 결과는 표 8과 같다.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에서 모-자녀 의사소통으로 가는 경로와 모-자녀 의사소통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은 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자아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의사소통이 어머니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사이를 완전매개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림 4에 경로계수를 표시하였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사이에서 매개변인인 모-자녀 의사소통의 Zab 값이 4.407로 나와, 모-자녀 의사소통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유의하게 경로계수가 입증된 경로의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에서 모-자녀 의사소통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857, 직접효과는 .857로,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이 매개변인인 모-자녀 의사소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자녀 의사소통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791이고 직접효과는 .791로, 매개변인인 모-자녀 의사소통 역시 종속변인인 자아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678이며 간접 효과는 .678로, 이는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 부자유친성정은 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종속변인인 자아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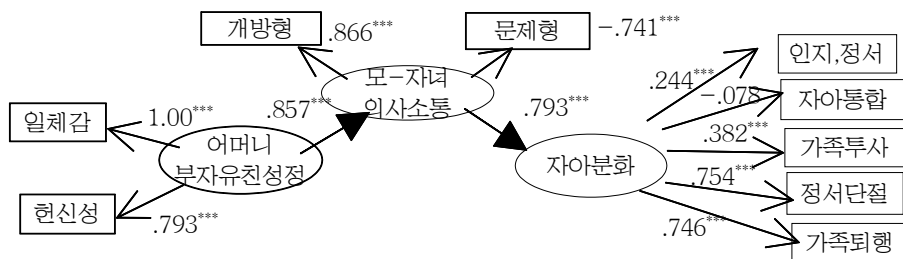
<표 7>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df	G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116.3	24	.944	.945	.917	.090
경쟁모형	116.5	25	.944	.945	.921	.088

<표 8>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의 경로 검증 결과

경로	모수추정치	S. E.	C. R.	경로계수
모 의사소통 ← 모 부자유친성정	1.189	.066	18.086***	.857
자아분화 ← 모 의사소통	.100	.022	4.628***	.791

\*\*\* $p < .001$



[그림 4] 경쟁모형(완전매개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으로 추정되는 구성개념인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부모자녀 의사소통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의 자아분화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박수영, 2005; 박영호, 2006; 배혜영, 2005; 최인재, 2004)에서 부자유친성정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결과와 일치한

다. 특히 부자유친성정의 하위요인인 일체감, 헌신성은 자아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과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서, 부모자식간의 강한 일체감과 부모의 헌신을 자녀는 부모와의 강한 유대감으로 지각함으로써, 이것이 결국 자녀의 자아분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과의 상관이 높은 것은 자녀가 부모와의 일체감, 헌신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분화의 두 가지 측면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과 같은 개인내적 측면의 분화보다, 관계적 측면의 분화와 보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부모와의 강한 일체감을 자녀는 부모와의 친밀감 또는 안정된 애착으로 지각함으로써(최인재, 2007), 부모와의 적절한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하고 가족 간 퇴행적 행동을 적게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일체감 및 헌신성에 대한 지각을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과보호 및 지나친 밀착관계로 비춰질 수 있고(Rohner & Pettengil, 1985), 부모자녀간의 밀착된 관계가 불안을 가져와 자녀와 부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Barnes & Olson, 1982). 그러나 김동직(1999)의 연구에서 독일 대학생에 비해 한국 대학생들은 개별성보다 관계성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설명변인이고,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높은 연구결과(이장주, 2002; 최인재, 2004) 등으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간 높은 결속감과 유대감은 서양의 '개별주의'와는 차별화되는 '관계주의'라는 문화 속에서 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긍정적인 자기개념 및 정신적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이장주, 2002; 장성숙, 2004). 즉 자녀가 심리·사회적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별성과 일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을 때, 한국문화에서의 혈육의식, 측은지정, 동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부자유친성정이라는 관계성을 통해 개인의 안정적인 개별화를 이루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부자유친성정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관계에서는 부자유친성정의 하위 요인인 일체감과 헌신성이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정서적 유대와 일체감 및 부모의 헌신, 고마움 정도를 강하게 지각할수록 부모자녀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의미이다. 의사소통 유형으로 개방형 의사소통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유형이며, 이에 반해 문제형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서로에게 보내며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주저하게 됨으로써 원활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 유사한 연구로 대학생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일체감 및 헌신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밀하고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대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헌신성을 높게, 아버지에 대한 헌신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명선, 문은미, 2009b). 정서표현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의 상관연구(조수경, 2009)에서 부모자녀 간 긍정적 정서표현과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과의 상관이 높고, 부자유친성정의 하위요인인 일체감 요인과 개방형 의사소통간의 상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재, 2007). 특히 일체감 요인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지지, 관심이나 친밀감을 일상에서의 대화를 통해 경험되는 것이기에 개방적인 의사소통 및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통해 긍정적 형태로 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투사, 정서단절, 가족퇴행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통합을 제외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정서단절과 가족퇴행과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자녀 간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뤄질수록 자녀는 부모의 갈등이나 원가족 문제가 투사된 정도가 낮아 부모와 적절한 정서적 애착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가족들과 보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나 스트레스를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모자녀 간 문제형 의사소통이 이뤄질수록 자녀는 부모문제의 투사정도,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및 역기능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기능할 경향이 높아지고, 이 외에도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의 미분화로 문제해결과 스트레스 대처가 역기능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아분화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갑숙, 전영숙, 2009; 최인재, 2004)에서 개방형 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간의 정적상관이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고, 장사라(2001)의 연구에서 아버지,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분화 하위요인 중 자아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과 정적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부자유친성정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 요인 중 유일하게 자아의 통합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자아통합 요인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이지민, 2010), 청년기 발달적 특징과 함께 관계주의 문화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청년기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달과업을 이루어 나가며 자신의 정체감을 통합해 나가는 단계이고, 부모나 친구, 동료와 같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견해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므로(이규미, 2005), Bowen이 말하는 자아통합이 타인과 관계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신념과 견해 및 생활 원리를 견지한다는 개념은 깊은 유대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가는 과정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자유친성정의 하위요인인 일체감과 헌신성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자아분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매개변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자유친성정의 일체감 및 헌신성과 자아분화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으며, 이는 부자유친성정의 특성이 자아분화에 직



접 영향을 주기 보다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자아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결과는 한국문화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결속을 강조하고 상호의 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부모자녀관계 의식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깊고 친밀한 동일체적 유대의식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오히려 자녀의 성숙을 돕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및 ‘부자유친 성정’ 요인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요인과의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는데 그친 것에 비 해,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의 성숙의 개념인 자아분화와의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 변인 간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역할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상 직접 표현되는 언어적 방식보다 이심전심, 강한 심정적 교류와 같은 방식 이 발달되어 있지만(최상진,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한국 문화의 부모자녀관계 구성개념으로 추정되는 부자유친성정을 촉진하는 매개수단이자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의사소통 유형이란 전달 되는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방식이나 과정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서 상호간의 밀접한 감 정 교류와 생각 등을 표현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방식임을 감안할 때,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 으로 지각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의사소통의 방식은 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의 심리적 성숙인 자아분화 수준을 높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및 지역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지각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대상으로 본 연구 결 과를 교차 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형식에 의해 얻어졌 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 기억을 토대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으로 추정되는 구성개념인 부자유친성정을 자녀의 지각에만 의존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부모, 자녀 모두의 상호 지각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인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간의 정교한 종단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다양한 연구에서 오랜 기간 사용 되어온 척도이기는 하나, 표현된 언어적 메시지 외에도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도 중요하게 내포하는 심 정주의, 관계주의의 우리나라 의사소통 문화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자아분화의 척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 요인 중 자아의 통합요인은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이지민, 2010), 한국문화에 맞는 자아분화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부, 모 모두 생존해 계시는 가정의 자녀들이었고 가족화목도 수준을 보통 수준 이상으로 화목하게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들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점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가정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가정의 부모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이 부자유친성정의 영향을 받아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녀의 자아분화 성숙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점은 상담현장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즉 관계와 집단을 강조하는 한국문화에서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부모자녀의 유대관계와 의사소통 방식의 개입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의 개별화와 독립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일체감, 헌신성이 깊은 유대 의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구의 성숙 관점에서 부모와의 분리, 독립만을 강조하기보다 부모자녀의 유대감을 긴밀히 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자유친성정이 대학생 자녀의 자아정체성, 대인관계, 사회성, 정서표현 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박영호, 2006; 최명선, 문은미, 2009a, 최명선, 문은미, 2009b)에서, 부모와의 일체감은 대체로 자녀에게 친밀감, 상호작용능력을 촉진시켜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부모의 헌신성은 부모 변인과 자녀 변인에 따라 부정적 정서표현, 낮은 친밀감 형성, 관계의 미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에서 부모의 애쓰고 헌신하는 측면만 자녀에게 지각되기보다, 자녀가 부모와의 친밀감, 믿음, 지지와 같은 일체감을 교류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보다 직접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 상담현장에서는 자아의 미분화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개입할 때 부모자녀 간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부모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안정된 부모자녀 지각이 자녀의 자아분화 성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인지·정서적 대처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이선미, 2014; 한정아, 심홍섭, 2005)에서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문제대처 방식을 사용하고 기분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의 성숙을 도움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지각을 좀 더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부모자녀 유대관계를 돕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성희, 임성택(2010).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1(1), 45-64.
- 김갑숙, 전영숙(2009).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79-94.
- 김동직(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 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보경, 민병배(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방식,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5(1), 221-236.
- 김성일, 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75-89.
- 김수임, 김창대(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인아(2007). 중학생의 불안, 모-자녀 의사소통, 방어기제와 적응문제의 관계모형: 성별 및 인지양식별 차이.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은경(2010).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청소년의 사회적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정택, 심혜숙(1993). 자아분화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의 특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 31-45.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홍규, 최재향(2006). 초등학생의 학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미래교육연구**, 13(1), 57-79.
- 박수영(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189-200.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영호(2006).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자유친성정, 애착, 우리 의식,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방희정(2000).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3), 41-65.
- 배병렬(2007). **Amos 17.0 구조방정식의 모델링 - 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배혜영(2005).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 오윤선(2008).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23-49.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복영(2008).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평가 연구**, 1(1), 89-101.
- 이선미(2014).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 가족건강성이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대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39-260.
- 이운기(2005).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이장주(2002). 부자유친성정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지민(2010).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간의 관계구조.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생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375-394.
- 이희자, 김경원(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83-295.
- 이혜숙(199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전귀연, 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3(1), 157-173.
- 장사라(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분화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 장성숙(2004). **한국문화에서의 상담의 초점 '개인중심' 대 '관계중심'**. 제5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문화와 상담, 23-45.
- 정은선, 조한익(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정은영, 신혜원(2009). 가족체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또래상호작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39-267.

- 조수경(200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및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학생 생활상담연구소, 30(1)**, 61-79.
- 제석봉(1989). 자아분화의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최명선, 문은미(2009a).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6(1)**, 165-177.
- 최명선, 문은미(2009b).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정서표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1)**, 43-55.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1994).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65-82.
- 최연실, 김현영(2005).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1)**, 1-17.
- 최인재(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인재(200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최인재(2007).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45-56.
- 최인재(2009).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분화 및 심리,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가족응집성의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4)**, 1-23.
- 한정아, 심홍섭(2005). 대학생의 자아분화,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65-981.
- 황영훈, 박은영(2003).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155-177.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79.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Ed.), *Family therapy*.

-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 Cushman, P. (1990). Why the self is empty: Toward a historically situate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y*, 45, 599-611.
- Elieson, M. V., & Rubin, L. J. (2001).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s: a test of Bowen theory among clinical, traditional, and internet groups. *Family Therapy*, 28(3), 125-142.
- Feldman, S. S., & Rosenthal, D. A. (1991). Age expectations of behavioral autonomy in Hong Kong, Australian and American youth: The influence of family variables and adolescents'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6(1), 1-23.
-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 690-698.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163.
- Kim, U., & Choi, S. C. (1994). Chapter. 11.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Coo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 226-257).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Kochanska, G., & Murray, K. T. (2000). Mother-child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and conscience development: from toddler to early school age. *Child Development*, 71(2), 417-431.
- Lambert, S. F., & Cashwell, C. S. (2004). Preteens talking to parents: Perceived communication and school-based aggression. *Family Journal*, 12(2), 122-12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Minuchin, S. (1995), The Leap to Complexity: *Supervision in Family Therapy, Evolution of Psychotherapy*, 3, 271-280.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Ora, Peleg-Popko. (2002). Bowen theory: A study of differentiation of self, social anxiety, and physiological symptom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4(2). 355-369.
- Riesch, S. K., Anderson, L. S., & Krueger, H. A. (2006). Parent-child communication processes: Preventing children's health-risk behavior. *Journal of Specialist in Pediatric Nursing*, 11(1), 41-56.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the Korea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6*, 524-528.

Tamura, T., & Lau, A. (1992). Connectedness Versus Separateness: Applicability of Family Therapy to Japanese Families. *Family Process, 31*, 319-340.

\* 논문접수 2014년 8월 4일 / 1차 심사 2014년 9월 11일 / 2차 심사 2014년 9월 23일 / 게재승인 2014년 9월 23일

\* 김지원: 영남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hi-ju@hanmail.net

\* 이정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jungyoon@sungshin.ac.kr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Adolescent Affective Bonding(Bu-Ja-Yu-Chin-Sung-Cheong) and Self-Differentiation : Mediating Effects of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Kim, Jiwon\*

Lee, Jungyoo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adolescent affective bonding and self-differentiation and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The subjects were 472 College students recruited from the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parents-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elf-differentiation, parents-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whereas parents-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elf-differentiation and parents-adolescent closed communication did negative correlation. Second, the full mediation model was more proper tha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adolescent affective bonding and self-differentiation.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recommended.

Key words: parents-adolescent affective bonding(Bu-Ja-Yu-Chin-Sung-Cheong), self-differentiation,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

\* First author: Dep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